

칼빈주의 바로 알기 15
존 맥아더 같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재권 구원(Lordship salvation)은 비성경적이다

롬11:1-5, 11

칼빈주의 바로 알기 시리즈, 두세 번 더하면 끝이 날 것이다.

오늘은 존 맥아더 목사 등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재권 구원(로드십 구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 위키 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Lordship_salvation_controversy

약속 구원:(Commitment salvation), 포기 혹은 항복 구원(Surrender salvation)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주님(주인)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노예 혹은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한다.

주로 개혁 신학 하시는 분들, 1980년대 John MacArthur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회개, 믿음, 성화, 굴복, 복종,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생산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실 때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시므로 이런 것들이 없는 구원 고백(체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될 수 없다.

As a part of his saving work, God will produce repentance, faith, sanctification, yieldedness, obedience, and ultimately glorification. Since he is not dependent on human effort in producing these elements, an experience that lacks any of them cannot be the saving work of God."[3]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구원 교리가 잘못되면 종말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문제

맥아더 목사: 여러 면에서 좋은 분, 그러나 로드십 구원은 성경과 다르다. 그래서 목사로서 나는 이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 젤리의 반박

(*) <https://www.middletonbiblechurch.org/salvatio/lordshrq.pdf>

하나님의 구원 조건(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로드십 구원 조건: 존 맥아더의 3 가지 책

1. 예수님이 전한 복음, 2. 믿음과 행위, 3. 믿기가 어렵다.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abbreviated GATJ), Faith Works (abbreviated FW) and Hard to Believe (abbreviated HTB)]

1. 그리스도를 따른다.
2.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
3.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
4. 스스로 약속해야 한다.
5.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6.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7. 왕국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8.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9.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사랑해야 한다.
10.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모든 재산을 드려야 한다.
11.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12. 제자의 요구조건을 성취해야 한다....

맥아더는 약4:7-10이 구원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초청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4:8)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4:9)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4:10)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관찰

1. 로드십 구원의 조건은 죄인인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있다.

성경적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 의지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휼에 기초를 두고 있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공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3:5).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겨지느니라(롬4:5).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맥아더의 말: 우리는(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구원의 조건들을 나열한다.

2. 로드십 구원 조건을 보면 맥아더 등은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성경: 구원의 유일한 조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의 일, 그분의 말씀만 믿는 것이다.

제자도의 조건: 구원 뒤 성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므로 로드십 성화는 말이 되지만 로드십 구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3. 제자도의 한 조건: 우리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보다 주님께 더 충성을 보이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내 가족, 소유, 생명보다 귀하게 주님을 여긴다.

즉 제자도의 조건은 마22:37을 다시 진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그런데 로드십 구원 주창자들은 마22:37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마22:37은 10계명의 요약(마22:40).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명령과 십계명에 따라 우리는 다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한다. 만일 하나님을 최고로 최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딤후1:15).

4. 맥아더는 HTB(믿기가 어렵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의 조건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람마다 소유가 다르므로 구원의 조건이 다 달라지게 된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영생의 조건은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무어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5. 로드십 구원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맥아더는 구원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책 제목도 <믿는 것이 어렵다>이다.

그러면 로드십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극도로 최상으로 사랑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기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자기가 제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달성하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께 한 약속이 주님의 기대에 미침을 알 수 있을까?

삶의 영역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없는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죄로부터 돌아섰단 말인가? 혹시 어떤 면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언급된 모든 조건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검증을 하면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더 실망이 크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그것 하나만 의지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지 않은가?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3:8-9).

하나님의 방법: 은혜와 믿음만으로 구원, 그 뒤에 구원에 따른 선한 행위(엡2:8-10)

로드십 구원, 은혜와 믿음과 행위(여러 조건들), 그러면 구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100%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가?

왜 이런 교리가 나오는가?

칼빈주의 5대 강령, 마지막,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택자라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기록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록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구원의 조건을 바꾸면 안 된다.

신약 성경은 무려 100번 이상이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easy believism, 잠시 구원 설명 손들고 나와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때문에 다른 극단으로 가서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는 무엇인가? 이분들은 꼭 구원하는 믿음 강조, 성경에는 그냥 믿음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두는 것이다.

즉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안식하는 것이다.

결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항상 100% 복종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제자도의 모든 조건을 실천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의로운 행위, 신실한 행위, 충성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엡2:8-10을 기억하라.

데이빗 클라우드

(*) <https://www.wayoflife.org/database/repentancerevisited.html>

로드십 구원: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구원은 결코 완전한 복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신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전3).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구원, 아니다!

1. 구원은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다(마19:14). 이런 면에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쉬운 것이다. 그런데 easy believism과는 다르다. 영접 기도로 끝나는 것
2.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
3.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경험을 바라보게 한다.
4. 구원은 반드시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구원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의 행위만 살피는 것은 맞지 않다.
바울의 고백을 보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롬7:18).
바울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런데도 여전히 옛 사람(육신)이 남아 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딤후1:12)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
나 자신, 변화된 삶, 경험, 확고한 충성 No!
성경의 요구,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기록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기록할지니라(벧전1:15).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 면에서 완전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에 대해 내가 바르게 집중하지 않을 나는 낙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특징: 이미 오래 전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제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다수 멤버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1.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모든 일에 주임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2. 이런 전적인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설교하므로
3. 의심이 있어도 구원은 아니라고 하므로
4.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가르치므로

이 경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

구원의 확신 의심,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데이빗 클라우드, 구원받은 첫 해, 구원받고도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여러 차례 기도함

죄 문제, 과거 습관으로 인하여, 이때 구원 의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함

왜? 아직 믿음이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아서

문제 해결: 교회에서 칭의, 성화, 거룩함,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등에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로드십 구원은 칭의와 성화(제자도)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것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

(* 해리 아이언 사이드(1876-1951, 1929-1948까지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

구원받은 뒤 젊은 시절에 구세군에서 복음을 선포함

거기서 그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아 자신의 옛 본성을 누르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이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래서 이런 경험(두 번째 축복)을 얻기 위해 기도, 금식, 울부짖기 등 갖은 노력

드디어 얻었다고 생각하고 간증 집회에서 자기가 이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함.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전히 죄와 싸우는 자기를 발견함 너무나 낙심이 되어 정신 변동에 입원하였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나오자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함

그런데 그는 병원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경적 성화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에게 닮을 내리고 오랫동안 성경적인 설교자로 살았다.